

##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성경: 요 14:10-11, 16-20, 고전 15:45하, 고후 3:17-18, 13:14, 갈 3:14

### I.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관한 분명한 조망, 곧 이상을 가져야 한다 — 잠 29:18상, 행 26:19.

- A. 우리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 법리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비밀한 것이 현저히 대조된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음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귀히 여겨야 한다 — 롬 5:10, 히 8:1.
- B. 우리는 어떤 영역, 범위,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영역은 우리가 지금 있는 영역보다 훨씬 더 높다. 훨씬 더 높은 이 영역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 C.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봄으로써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영적인 일들에서는 보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다 — 요 3:3, 5.

### II. 삼일 하나님 자신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다 — 요 14:10-11.

- A. 삼일 하나님, 곧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동시에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이러한 분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영께서 바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시며, 신성한 삼일성의 셋은 서로 안에 거하신다 — 마 28:19, 고후 13:14.
- B.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이 되시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곧 삼일 하나님이라는 영역을 형성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 III. 오늘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사실상, 단순히 삼일 하나님이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 빌 1:19, 롬 8:9, 고후 3:17-18, 갈 3:14.

- A. 성경은 하나님의 영께서 완결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영이 되셨음을 계시한다 — 요 7:39, 14:16-17, 20:22, 롬 8:9, 빌 1:19.
  - 1. ‘완결되신 영’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영께서 과정을 거치시어 완결되신 영이 되셨다는 것을 함축한다 — 요 7:39.
  - 2. 완결되신 영은 바르는 기름으로 예표된 복합되신 영이시다 — 출 30:23-25.
    - a.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효능,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과 연합되셨다 — 빌 3:10.
    - b. 이러한 연합의 산물이 복합되시고 완결되신 영이다 — 빌 1:19.
  - 3. 완결되신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신 삼일 하나님이시다 — 요 7:39.
- B.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계시한다 — 고전 15:45하.

1.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 고전 15:45하, 고후 3:17-18.
2. 따라서 우리는 완결되신 영과 이러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요 7:39, 갈 3:14, 고전 15:45하.

**IV.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실지로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 요 14:16-20, 17:21-23.**

- A. 우리는 신성한 출생을 통하여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태어났다 — 요 3:5-6.
- B.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요 3:15), 본성(엡 1:4, 벨후 1:4), 생각(엡 4:23, 빌 2:5), 존재(고후 3:18하, 엡 3:8), 형상(고후 3:18상, 롬 8:29), 영광(롬 8:30, 히 2:10), 아들의 자격(엡 1:5, 롬 8:23), 나타남(롬 8:19), 모양(요일 3:2)에 참여함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 C.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건축됨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 엡 4:16.
  1.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 있을수록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더 있게 된다 — 롬 12:4-5, 고전 12:12-13, 27, 엡 1:22-23, 4:16.
  2. 믿는 이들은 한 실체로 섞여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된다 — 고전 12:24, 27.

**V.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한다 — 롬 8:16, 요 14:2-3, 20, 고전 15:45하, 갈 3:14, 고후 3:17-18.**

- A.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역 안에 살기를 배워야 한다 — 빌 1:19, 고후 13:14, 갈 3:14.
- B.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유일하고도 모든 것을 포함한 복이신 그 영을 받는다 — 갈 3:2, 5.
- C.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전달을 받고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의 공급을 받는다 — 엡 1:22, 히 8:1-2.
- D.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한다 — 롬 5:10.
- E.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종(種)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산다 — 요 3:3, 5.
- F.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산다 — 요일 1:3, 7, 행 2:42.
- G.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의 자동적인 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애쓰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 — 롬 8:2.
- H.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계시된 신성한 실재의 표현인 진실함의 생활을 한다 — 요이 1, 요삼 1, 요 4:23-24.
- I.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를 지키기 위해,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연합된다 — 요 17:21, 23.
  1. 참된 하나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 — 마 28:19, 요 17:21, 23.
  2. 진정한 하나는 믿는 이들과 삼일 하나님의 연합이다 — 고후 13:14.

- a. 이러한 하나를 갖기 위해 믿는 이들은 반드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신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 b. 믿는 이들은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서 삼일 하나님과 하나이다.

**VI.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사람 곧 인간적이면서도 신성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갈 2:20, 고후 10:1, 13:14.**

- A. 우리는 신성하면서도 인간적이어야 한다. 즉 단지 인간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밀하게 인간적이어야 한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신성하고 비밀해야 한다 — 요 14:16-20.
- B. 신성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고전 10:31, 골 3:17.
- C. 주 예수님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물질적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신성하고 비밀해야 하며, 물질적인 영역과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동시에 살아야 한다 — 요 3:13, 엡 4:20-21, 히 4:16, 13:13.

**VII.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 마 24:40-41.**

- A. 두 남자와 두 여자는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살아 있을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 — 계 14:1, 4하.
- B. 데려가지는 것은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다 — 마 24:21, 계 3:10.
  - 1.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은 비밀한 휴거, 곧 준비된 이들이자 성숙한 이들의 휴거를 가리킨다 — 계 14:4하.
  - 2. 데려가진 사람과 남겨진 사람의 차이는 생명의 성숙에 있다. 한 사람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 마 24:40-41.
- C.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되기를 기대하는 동안 우리의 일상적인 의무들에 신실해야 하고,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하는 동시에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비교 살후 3:6-15.